

문

부제: 치사한 사람들



연극 대상 소개

“

최소한 치사한 사람은 되고 싶지 않고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뷰 中)

이름 : 김현수
나이 : 19살
관계 : 한 학생의 친구
취미 : 스파링
학력 : 고등학교 자퇴

현수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단란하지 못한 가정 속에서 살아오며 많은 아픔들과 이별을 겪으며 자라왔다. 그 과정에서 빈번한 가출과 일탈 등으로 편견을 받고 살아왔으며 편견이라는 프레임이 씨워짐으로써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아 먼저 호의를 밀어 내려는 성향을 가지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수는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음에도 항상 자신을 챙기는 것보다 남을 먼저 우선시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의리를 지키는 등 사람을 내적으로는 좋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Theme :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로잡음으로써 더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삶을 그려본다.

치사하다

치사하다(恥事) - 행동이나 말 따위가 제체하고 남부끄럽다.

치사하다(致謝) -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을 표시한다.

Synopsis : 수현은 지금까지 아르바이트해 열심히 번 돈으로 작은 단칸방을 얻는다. 그러다 장난기 많은 한 친구의 전화로부터, 본인은 알지 못하는 수현의 집들이가 시작되고 평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아르바이트하다 만난 언니까지 여러 사람들이 수현의 독립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다.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얘기가 나오고 즐거웠던 분위기는 조금씩 가라앉는다.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혼자 남은 수현에게 찾아온 불청객. 바로 어머니. 반갑지 않은 손님의 등장으로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닫는다.

Concept : 수현의 집들이

/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한 수현.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보며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다 보고 싶은 아버지를 회상하게 된다. 수현의 과거 이야기가 풀어지다, 절정인 순간에 엄마가 찾아오고 하강 시점에서 아버지가 찾아오시면서 마무리 된다.

기획의도 : 힘들고 지친 연극 대상의 삶이 보다 바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가는 마주하게 될 터닝포인트를 모아 연극으로 만든다. 그저 자신의 처지나 한계를 느끼는 것이 아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연극이 되었으면 한다. 이로써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담아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되길 원한다.

우리가 바라는 연극은?

: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교훈을 주는 연극.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현수(연극 대상)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연극.

진정한 친구의 정의를 새로이 알게 되는 연극.

불완전한 가정으로 인한 비관적인 마음들을 치유해 주는 연극.

CASTING



김수현
박지원



나일갑
박예빈



이병을
임하연



한주병
임하연



문구정
허운진



최고심
김세연



고단혜
박예빈



김수로
오영화

연출 포인트

-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됨, 엄마와 과거 회상, 아버지와의 추억들

친구들은 툭툭 던지지만 깊이 있는 질문으로 수현이의 과거나 내면의 이야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현이와 같은 아이들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수현의 가정사를 보다 자세히 풀어내고 이에 대한 지금껏 느껴왔던 감정과 생각들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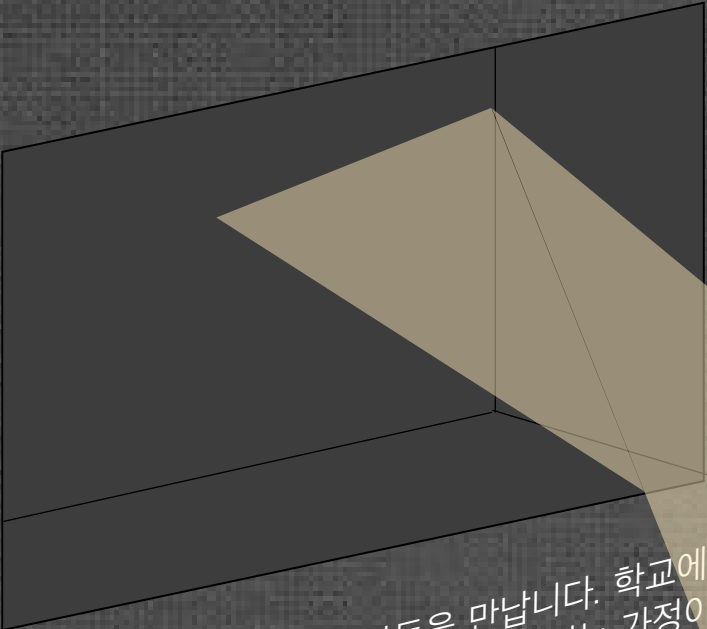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가정의 확립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풀어준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대화는 가정을 나타낸다.
(어머니-아버지와의 대화 => 가정)

집에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연출하다, 주인공이 집에 홀로 남게 되었을 때에는 정적과 빈 공간을 통해 대비되는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극 중 집의 ‘문’은 여러 인물들이 수현이의 집으로 들어옴에 따라,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치게 해주는 수단이다. 또 문은 수현이가 따뜻한 안식처인 집(가정)으로 들어가게 해주기도 한다.

아버지 ‘김수로’는 수현에게 삶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며 결국 수현이가 엄마를 찾아 문밖으로 나가게 해주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는. [수로]가 된다. 1. 물이 흐르거나 물을 보내는 통로. 2. 수현이의 길(路)이 되어준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여러 상황 속에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집에서도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이란 이름으로 가장 작은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서 행복을 찾고 서로 즐거워하며 편안한 유대감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에게도 시련은 오기 마련입니다.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충돌하면서 싸우고 고통받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골 3:13)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리 밉고 싫은 존재일지라도 주께서 하신 듯이 우리도 먼저 용서하고 다가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 <문>에서도 많은 고통을 주었던 엄마가 등장합니다. 수현(주인공)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존재인 엄마. 과연 수현이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문

〈문〉 부제: 치사한 사람들 시스템(음향, 조명) Product Plan

연출: 임하연

음향: 김예원

조명: 김채영

조명 (4) 전체적인 집: 노랑

조명 (5) 전체적인 집 - 아빠와 대화: 하양

조명 (6) 단혜와 만남: 파랑

조명 (7) 쇼파 중점: 하양

핀조명 (8) 드럼 쪽 핀조명

핀조명 (9) 무대 중앙 핀조명

핀조명 (10) 집 입구 핀조명

장면	등장인물	연기 및 연출 포인트	음향	조명
#(1) 주인공의 전화 장면	김수현 (주인공)	극 시작 수현이 액자를 의자 위 에 올려둠	(없히고 2초 후) 전화 벨 소리, 80% → (전화 받 은 후) 0%	조명 (4), 100% / 핀조명 (8.9.10), 100%
#(2) 친구들 등장 (일갑, 병 을)	김수현 나일갑 (친구 1) 이병을 (친구 2)	수현, '청소할 사람이 나밖에 없지 뭐.' -> 7 초 후 수현, '택배인가?' 수현, 문을 연 뒤 다시 닫음	초인종 소리1, 50% 초인종 소리2, 70% 초인종 소리3, 70% → 90%	
#(3) 친구들 퇴장		병을, '와, 문 진짜 무 겁다.' -> 1초 후 일갑, '잘 있어라.' -> 1 초 후	문 열림, 70% 문 닫힘, 40%	

#(4) 친구들 등장 (주병, 구 정, 고심) 릴스 촬영	김수현 한주병 (친구 3) 문구정 (친구 4) 최고심 (알바 언니)	수현, 청소 밀대 가지 고 쇼파 좌측으로 나옴 고심, '자 이제 찍는다 ~' 춤 춘 뒤, '아~' 라는 탄 식과 함께	초인종 소리1, 70% (후) 릴스 노래 지글지 글, 90%	(선) 조명 (4.8.9.10), 0% / 조명 (7), 100% 조명(4), 100%
#(5) 주병의 전화 친구들 퇴장		구정, '역시 내 친구.' -> 5초 후 주병, '비켜봐' -> 2초 후 구정, '김수현! 잘 있어 라~'	전화벨소리, 40% 문 열림, 70% 문 닫힘, 40%	
#(6) 수현과 고 심의 대화 고심 퇴장 액자 응시	김수현 최고심	수현, '대체 뭐가 문제 인지 모르겠어요.' 한 숨 쉴 수현, 액자를 들고 쇼 파로 걸어 간다. 고심, '그런 게 아니었 다면 미안하구.' -> 1 초 후 고심, 문을 열고 나간 다. 수현, 의자 쪽으로 걸 어간다 수현, 액자를 바라본 뒤 2초 후 '아, 이제 다 갔네...'	 문 열림, 50% / 문 닫힘, 20%	조명 (4), 0% / 조명 (8), 서서히 100% 조명 (8), 서서히 0% 조명 (4), 100% 조명 (8), 서서히 100% 조명 (8), 서서히 0%

#(7) 단혜 침입	김수현 고단혜 (엄마)	수현, 마지막 대사 '고민할 시간에 짐정리나 마저 해야지' -> 10초 후 단혜, 집에 들어온다. 단혜, 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감 수현, 단혜를 내보내며 실랑이	노크 소리 1, 80%	조명 (4) 0% + 조명 (6), 80% [오버랩] 조명 (7), 0% 핀 조명 (10), 서서히 100% 조명 (6), 50%
단혜 퇴장		단혜, 문을 열고 나감 문이 닫히며 '쿵' 소리와 함께	문 열림, 50% 문 닫힘, 100%	조명(6), 서서히 20%
수현 울분		수현, 쇼파 앞으로 나와옴		서서히 핀조명 (10), 0% + (오버랩) 조명 (7), 70%
수현 잠들		수현, 구석에서 잠이 든다.		조명 (7), 서서히 50% -> 2초 멈춤 -> 서서히 20%
#(8) 수로 등장	김수현 김수로 (아빠)	수현이 잠에 들고 10초 뒤) (수현이 입구에 닿을 때 째) 수현, 문을 연다. 수현, 문 열며 '아무도 없네' 후 바로 수현, '아빠?' -> 3초 후	노크 소리2, 50% 문 여는 소리, 50%	조명 (6) 서서히 0% + (오버랩) 조명 (7), 서서히 50% 핀조명 (10), 100% / 조명 (7), 0% 핀조명 (8), 100% 조명 (5), 100%

		수현과 수로는 쇼파 앞으로 걸어온다. 수로, ‘아빠는 그래서 도망친 거야.’ 수로, ‘너의 전부를 쏟지 않았으면 해서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 수현, ‘아빠 오늘 자고 가는 거지?’ 중 ‘아빠’ 후	(선) 고요한 노래, 서서히 10% 고요한 노래, 서서히 0% 수현 목소리, 50% -> 서서히 0%	핀조명 (8.10), 0% + (오버랩) 핀조명 (9), 100% (후) 조명 (5.9), 0% + (오버랩) 조명 (7) 100% 서서히 암전
	김수현	수현, 잠에서 깨며 ‘아빠, 아빠!’ 후 ‘아빠!(3번째)’ 하며 수현이 두리번 거린다. 수현, ‘어릴 적부터 혼자였던 세상 속에서’ 대사 후 뒤를 돈다. 수현, 벽을 짚고 쓸며 ‘이것 봐, 한 대…두꺼운 철문.’ 대사 후 쇼파 우측으로 일어나오며 수현, ‘단칸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나오길 바랐던 거야.’ -> 2초 후	수현 목소리, 원상복귀 전화 벨소리, 70% -> (전화 꺼낸 후) 0%	조명 (7), (바로 켜지며) 80% 조명 (4), 50% 핀조명 (8), 100% 핀조명 (10), 100% 핀조명 (8.10), 서서히 0% / 조명 (7), 0% / 핀조명 (9), 1초 후 100%

수현의 전 화		수현, '치사한 건 그들 이 아니라... 나였네.' -> 3초 후	전화 벨소리, 70% -> (전화 꺼낸 후) 0%	
		수현, '여보세요...네, 네.'	(후) 노래 '나의가족', 20% -> (17초 후) 서서 히, 50%	(선) 조명 (4), 서서히 80%
		수현, (입구에 닿을 때 쯤)		핀조명 (10), 서서히 70%
		수현, 문 앞에 선다.		조명 (9), 서서히 0%
수현 퇴장		수현, 문을 열고 나선 다.	문 열림, 100% 문 닫힘, 100%	
		수현이 무대를 벗어나 고 3초 뒤		핀조명 (10), 서서히 0% / 조명 (4), 20% -> (5초 후) 서서히 0%

<문> 부제: 치사한 사람들 동작, 동선 Product Plan

[조명] 하우스 조명 100%
③ 동작 끝난 뒤,
[음향] 전화벨소리- 신데렐라, 80% → (전화 받은 후) 서서히 '샤방샤방' 0%

등장 → ① → ② → ③
: 집 정리(종이 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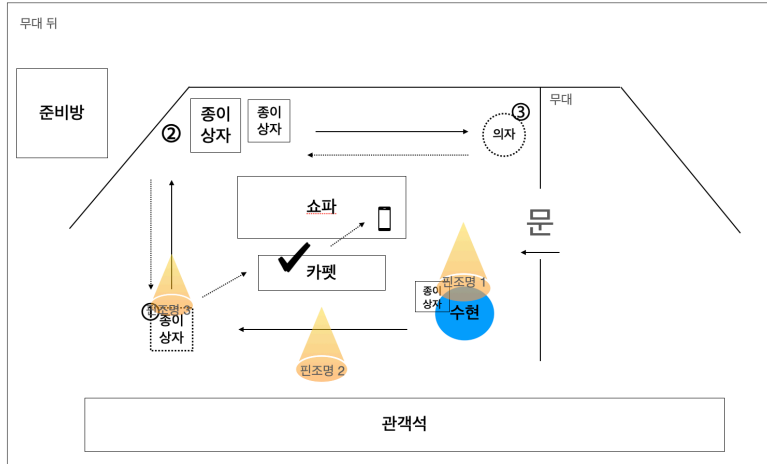
전화벨 ③ → ② → ① →
카펫 : 핸드폰 찾기

카펫에서 전화벨, '구박을'
: 넘어지기 → (관객 바라보며) 음소거 고통 / '샤방샤':
'여보세요?'
→ 어깨로 전화 받기

'어 이병을.' → 손으로 잡기

선
후

#(1)



병을, 등장 → ③ → ② →
① / ①에서 기웃거림

일갑, 병을 뒤따라가며 ③
옆 벽 두드리고 먼지 쓸기
등 집 살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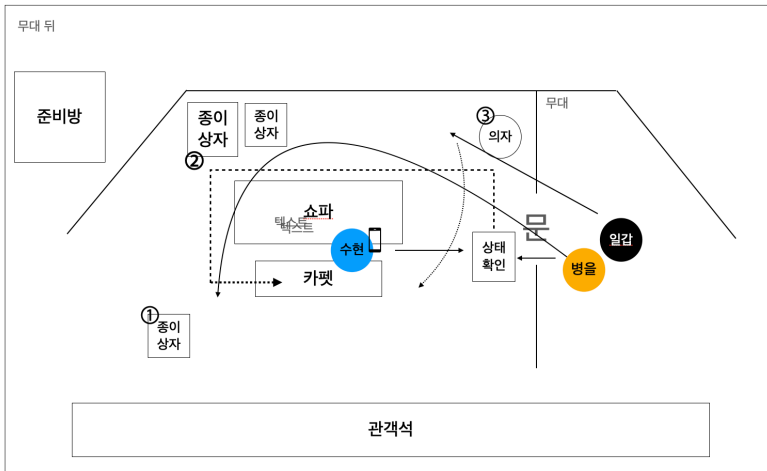
일갑, 수현의 '주소도 안 알려...온 거야?' 대사 후 수현
을 향해 걸어감 → 소파 우측

일갑, '토 나온다 진짜.' 대사
후 소파 우측 가장자리에 착석

수현, 병을을 카펫 좌측에 앉힌
뒤, 벽쪽에 착석

선
후

#(2)



병을, (장수 대화) '..몰라?'
후, 소파 좌측으로 올라가 드러누움 → 일갑, 발로 툭툭 참

일갑, '지금도 징그럽게 살 맞대고 있어야 하는데.' 후, (일갑 기준) 왼쪽으로 한 칸 이동 → 병을, 따라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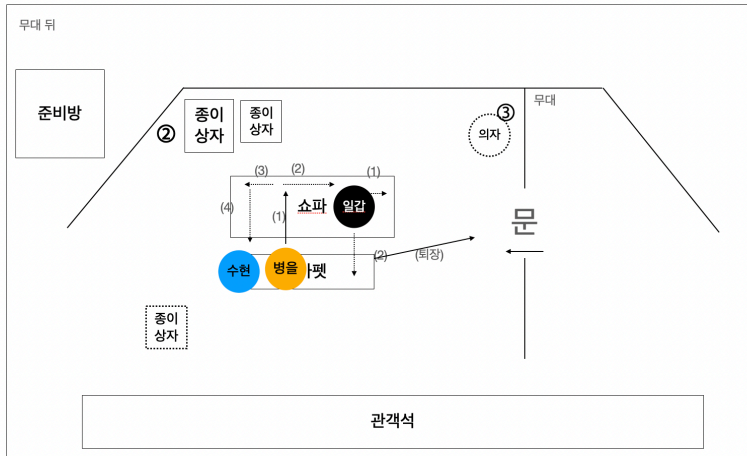
병을, 일갑의 '근데 니 걱정이 나 해~ 라는 말에 빠진 채로 바닥으로 내려감 → 일갑 따라 내려가 카펫 우측 착석

일갑, 병을 퇴장 시 소파 좌측으로 돌아가 현관으로 감

병을, 어렵게 문을 열고 일갑과 퇴장

선
후

#(3)



〈물 / 부제: 치사한 사람들〉_대본

대본: 박예빈, 박지원, 임하연

등장인물

김수현 20 / 박지원

친구 1: 나일갑, 여 20 / 박예빈

친구 2: 이병을, 여 20 / 임하연

친구 3: 한주병, 여 20 / 임하연

친구 4: 문구정, 여 20 / 허윤진

알바 언니: 최고심, 여 23 / 김세연

어머니: 고단혜, 43 / 박예빈

아버지: 김수로, - / 오영화

수현의 집

1장

작은 단칸방을 얻은 수현. 막 이사해 어지럽게 놓인 짐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

수현 : 여보세요? 어, 이병을. 나? 지금 좀 바쁜데. 뭐, 아 안돼 나 할 거 많아. 그거는 네가 알 거 아니고. 아... 신경 쓰지 마. 그냥 뭣 좀 정리하고 있어. 별거 아니야. 야, 나도 정리는 하고 살아..! 아 있어 요새 방 옮겨가지고... 뭐 거의 내가 공장에서 살다시피 했잖니? 그거 한 번도 안 쓰고 다 모았지. 요즘 나 술도 안 먹잖아. 야, 너 이거 또 말하고 다니지 마라. 아 너네 오면 더러워지니까 그렇지! 어차피 너 와도 문 안 열어 줄 거야. 어~ 끊어 어~ 난 안 사랑해~

수현 : 아휴,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짐이 이렇게 많냐... 안 그래도 작은 집 더 작아 보이게. 그래도 뭐 독립이니까. 청소할 사람이 나밖에 없지 뭐.

[초인종 소리]

수현 : 뭐야? 설마...

[요란하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

일갑, 병을이 요란하게 수현을 부른다.

수현 : 아니, 오지 말라고 주소도 안 알려줬는데... 진짜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일갑 : (비웃는 듯이) 젠리 봤지~ 야, 애 겁나 놀란 듯.

병을 : 뭐야, 내 미모를 보고 놀란 거야? 그런 거라면 이해가 되지...

일갑 : 토나온다 진짜.

수현 : 하... 됐고, 민원 들어오니까 빨리 들어와 그냥. 시끄러워 진짜.

일갑 : 이런 데에 또 사람이 살긴 사네?

병을 : 야, 그런 말 하지 마. 됐고 수현아, 내가 뭐 가져왔게? (술병을 달그락거린다) 집들이면 한잔 해야지!

수현 : 야, 나 이제 술 안 마셔. 넣어둬.

병을 : (비웃으며) 뭐래, 이거 공짜야. 누가 돈 내래?

수현 : 넌 뭐 공짜면 다 먹냐? 난 관심 없어. 그렇게 소중한 술 너네끼리 드세요.

병을 : 아니 왜? 벌써 건강 챙기는 거야 설마?

수현 : 네네, 무병장수하겠습니다.

일갑 : 이미 늦었어 인마.

병을 : 진짜 안 마셔? 가짜 이슬인데... 아 마시자!

수현 : 진짜 왜 이러실까? 나 진짜 안 마신다고 몇 번을 말해. 이따 너네끼리 마시라니까? 아니다, 너네도 그냥 먹지 말고 같이 장수나 할래?

일갑 : 아 미안. 난 장수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병을 : 야, 그래도 세상은 오래 살고 봐야 하는 거겠어.

일갑 : 누가 그러디?

병을 : ..몰라?

병을, 바닥에 드러눕고 일갑은 방을 둘러본다. 수현은 과자 봉지 하나를 뜯으며 앉는다.

일갑 : (병을을 툭툭 차며) 야야, 좁아. 눕지 마. 앉아 좀! 하여튼 눕는 거 참 좋아해요. 김수현 너는 한 30평은 구

할 것처럼 공장 다니더니, 야, 이거 기지개는 켤 수 있냐? 아니다, 기지개는 무슨, 조금 움직이기만 해도 무너질 것 같은데 여기?

수현 : (코웃음 치며) 야, 니같이 궁전 같은데 살면서 내놓은 자식 취급 받을 바엔 차라리 제 발로 나와서 이런 쥐구멍 같은데 사는 게 낫지.

일갑 : 아, 아파. 뼈 맞았어. 순살 됐어.

병을 : 아니 근데 여기 찾기 진짜 힘들었어...

일갑 : 그니깐. 찾아오는데 사람 사는 데가 맞는 건가 싶었다니까. 근데 그 와중에 진짜 웃긴 건 문은 또 안 어울리게 겁나게 튼튼한거야.

병을 : 맞아, 문 두드리면 들을 수는 있나 싶더라?

일갑, 병을이 크게 웃는다.

수현 : 일 절만 하지? 그래도 엄마가 있는 그 집보다는 백배 낫거든?

병을 : 그건 맞네. 그래, 엄마로부터 탈출한 소감은?

수현 : 좋지.. 좋아. 이제 그 술주정 안봐도 되고.. 음...뭐.... 너네도 다 알잖아. 우리 엄마 어떤지.

일갑 : 그래, 저번에 나 진짜 소름 돋았잖아. 좀 옥하시긴 해도 우리한테 잘 챙겨주시길래 친절하진 줄 알았는데...

병을 : 아~ 맞아 맞아, 우리 나가자마자 너한테 욕하는 거 듣고 진짜... 우리가 괜히 왔나 싶더라. 괜히, 어? 막 미안.. 해지고!!

일갑 : 너나 나나 이럴 때 보면 부모님 없는 애가 제일 부러워.

병을 : 야. 난 또 왜 건드려.

일갑 : 아니,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야 근데 그래도 딸이 독립했는데 뭐라도 안 해주시든?

수현 : 야, 너 몰라서 묻냐? 나 완전히 연 끊으려고 독립한 거야.

일갑 : 하긴, 여기 뭐 들여놓을 자리도 없어 보이긴 한다. 지금도 정그럽게 살 맞대고 앉아 있어야 하는데...

일갑이 병을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병을은 일갑을 따라간다.

병을 : 근데 그래 놓고 한 달 만에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 하는거 아니고?

수현 : 선 넘지 마라. 그냥 알바를 뛰고 말지. 근데 왜 아까부터 자꾸 가족 얘기하면서 기분 잡치게 하나?

병을 : 아니, 벌써 독립한 게 부러워서...그렇지..뭐

일갑 : 야 재 벌써 그 뭐냐, 보육원에서 쫓겨날 때 준 돈 벌써 다 써먹어서 그래. 니가 이해해라.

병을 : 그렇게 불쌍하면 니가 좀 주던가.

일갑 : 나도 없어. 그 사람들 나한테 돈 한 톨도 안 쓰는 거 알잖냐. 나 거의 하숙생이라니까? 진짜 잠만 재워준다고. 웃기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자식인데.

수현 : 자식이면 자식답게 행동을 하던가. 나처럼 돈이라도 벌어야.

일갑 : 나도 너 같은 상황이면 돈을 벌었지. 아니다, 나도 그냥 독립을 할까?

병을 : 야, 김수현 꼬박 3년을 일해서 이 조그마한 집 얻은 거 안보이나. 넌 모아둔 돈도 없잖아. 하여튼 공주님 납셨다. 지금이라도 알바를 뛰든가. 그래야지 어디 남친 사귄 수 있지 않겠니?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일갑 : 걱정 감사요. 근데 니 걱정이냐 해~

병을과 일갑은 쇼파에서 내려온다.

수현 : 하...결혼이고 뭐고 우리 엄마 하는 거 보니까 난 자신 없다. 그래도 우리 아빠 생각하면 나도 아빠처럼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해. 너네는 꿈꾸는 가정 같은 거 없냐?

병을 : 있지. 예쁜 여자?

수현 : 아니...지금 이상형을 묻은 게 아니잖아.

병을 : 장난이고, 진짜 있어...돈 많은 여자?

일갑 : 넌 진짜 금쪽같은 내 새끼다. 내 새끼야 정말. 재 지금 진지한 거 안 보이냐?

(약간의 정적)

병을 : 음. 아 뭐. 꿈꾸는 가정보다는...만약 자식이 생긴다면 나처럼만 안 컸으면 좋겠어. 부모도 친척도 없이 무연고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지금은 너네 같은 친구라도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사실 뭐 가족이 있어본 적이 있어야지. 난 이상적인 가족이 뭔지도 모르겠다.

일갑 : 그럼 너도 무병장수해야겠네. 야, 근데 부모 있어도 다를 거 없어. 나 봐...뭐, 다 내 업보긴 하지만. 그래, 태어난 게 잘못이겠지. 부모가 잘 나가는 게 나한테는 독이야. 내가 자기들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완전 버려졌잖아. 그 사람들한테는 자식도 수단이고 도구인 거지. 게다가 이제 성인 됐다고 잠만 재워줬던 것도 이제 못하게 생겼다니까? 맨날 눈치 쥐. 근데 뭐 어찌겠냐. 그냥 눈치 없는척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그래, 너 말이 맞네 김수현. 궁전 같은 데서 그렇게 살 바에는 이런 쥐구멍에 사는 게 낫네.

수현 : 오바하기는. 분위기 처지게 할 거면 방 청소나 해라.

병을 : (뜸 들이며) 여기 청소한다고 과연 뭐가 달라질까요? 그리고 나 약속 있을 예정임.

수현 :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약속 있을 예정이라는 건 또 뭐냐?

일갑 : 오, 나도 그 약속 뭔지 알 것 같아.

수현 : 어휴, 기대하지도 않았어. 싸게 나가라 그냥.

병을이 문을 열려 시도하지만 쉽게 열리지 않는다.

병을 : 네~ 네~ 가겠습니다. 와, 문 진짜 무겁다.

일갑 : 호들갑 좀 그만 떨어. (문을 짚는다) 오우.. 장난 아니네.

병을 : 야, 내가 뭐랬어. 김수현, 우리 간다.

일갑 : 잘 있어라.

일갑, 병을 퇴장.

수현 : 에휴, 귀여운 자식들. (일어나면서 몸의 먼지를 털며) 자! 빨리 청소나 하자.

주병, 구정, 고심 등장.

[초인종 소리]

수현 : 뭐야! 누가... 또 이병을인가?

구정 : 수현 안녕!

고심 : 언니 왔드아~

주병 : (휴지를 건네며) 야, 집들이 선물.

수현 : 애넌 또 뭐야...? 고심 언니는 어떻게 만난 거야?

주병 : 이병을이 너 이사했다고 말하고 다니던데?

수현 : 하...

구정 : 야야, 수현! 새 집에서는 릴스 한 번 찍어줘야지! 나랑 주병쓰는 10분 있다가 가야 하니까 얼른 찍자!

고심 언니! 우리 좀 찍어주세요.

수현 : 이렇게 갑자기...? (내심 좋아하며) ...쿨!

구정 : (수현과 주병에게 문신 팔토시와 선글라스를 건네며) 이거 빨리 꺼!

주병은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팔토시와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수현 : (떨떠름하게) 와... 이게 뭐야. 하다하다 문신 팔토시까지 들고다녀?

주병 : 넌 안 꺼?

구정 : (겉옷을 벗고 문신 팔토시를 드러내며) 에이~ 이건 기본 아니냐~

주병 : 저런.

수현은 싫은 내색을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 신나게 팔토시를 낀다.

고심 : 어우 야. 요즘 애들은 이러고 노는 거야? 세대차이 봐. 자 이제 찍는다~

수현과 주병, 구정은 함께 유행하는 비디오를 찍는다. 지글지글

구정 : (촬영 영상을 돌려보며) 진짜 역대급인데? 근데 배경이 좀 아쉽긴 하다. 뭐, 췌든 업로드 완료!

주병 : 에휴, 진짜 릴스 중독이다.

고심 : 너가 제일 열심히 추던데?

(수현과 친구들이 웃는다.)

주병 : 야, 다리 아프다. 이제 좀 앉자.

구정 : 와, 사람들 사는거 진짜 갓생이다. 난 언제 이렇게 살아보냐.

수현 : 왜? 뭔데?

주병 : 또 명품 사랑하는 거겠지 뭐.

수현 : 한 번 보자. 와...구찌... 야 이거 알바 2달 뛰면 가능할 것 같은데?

구정 : 근데 알바하면서 구찌백 들고 다니는 건 좀 웃기지 않나?

수현과 친구들이 크게 웃는다.

수현 : 뭐,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언제 진짜 산다 그랬냐?

주병 : 알아, 알아. 근데 여기 좀 좁긴 하다. (구정과 조금 떨어지며) 나 애랑 이렇게 붙어있기 싫은 데.

구정 : 어이없네. 그래도 난 너가 좋아~~(주병에게 찰싹 붙는다)

고심 : 어휴, 귀엽다 귀여워. 근데 너네는 알바하는거 이렇게 노는 거 말고 뭐 하는 거 없어?

구정 : 우리 주병이는 대학생인데요.

고심 : 아, 맞네! 주병이 대학 합격 축하해!

주병 : 어? 어떻게 아셨어요? 감사합니다~

구정 : 맞아요. 의외로 멀쩡한 친구예요.

수현 : 그러면 뭐 나는 멀쩡하지 않다는 소리야?

구정 : 어, 나도 포함이야.

고심 : 근데 그 버너대면 연예인 송강도 다니는 데 아니야?

주병 : 맞아요.

수현 : 어 송강호? 미쳤다 나 기생충 엄청 많이 봤는데 겁나 부럽다.

주병 : 어..? 송..송강..호?

(구정, 고심 크게 웃는다.)

수현 : 왜? 왜! 아 문구정! 왜 웃는데? 언니, 왜 웃는데요?

구정 : 야 요즘 탑스타야. 송강 모르면 간첩인거 몰라?

수현 : 뭐, 알아야 돼?

구정 : 무식하긴, 맨날 그렇게 알바를 뛰니까 모르긴 하겠네. 그리고 보니까 이 집 기생충에 나왔던 반지하 집이랑 비슷하네~! 너 이런 집에서 무서워서 어떻게 사니?

주병 : 그래도 문은 튼튼한 것 같던데? 여기 갇히면 119 신고해서 열어야 될 듯.

고심 : 어우, 야 진짜 정신없다. 갑자기 송강에서 여기까지 오냐. 이제 너네 스무살인데, 하고 싶은 일 없어? 주변 동생들 보니까 스무살 버킷리스트 같은 거 만들던데. 나도 그랬었고.

구정 : 잘 모르겠는데요. 팔로워 더 늘리기? 협찬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던데.

고심 : 그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더 의미 있는 일 있잖아. 너네 어렸을 때 꿈 하나씩은 다 있지 않았어?

수현 : 있었죠. 경찰관.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어서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경찰이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진 않더라구요.

고심 : 그럼 지금은 되고 싶은게 없는 거야?

수현 :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래도 되고 싶은 직업은 없지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있어요. 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치사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대단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그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덕을 지키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구정 : (수현의 말을 끊고 들어오며) 저는 아이돌..? (구정이 관객을 보며 엔딩요정 포즈를 한다.) 어때? 좀 아이돌같지 않냐?

주병 : 넌 아이돌 했으면 논란이 너무 많지 않겠니...?

고심 : 하하. 너는 뭐 하고 싶었는데?

주병 : 저는 뭐...잘 모르겠는데요. 꿈 가져봤자 뭐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시집만 잘 가면 된다 그러던데.

고심 : 그래도 굳이 말한다면 뭐가 있을까?

주병 :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미술이 있으니까 아마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구정 : 음~멋있어~ 역시 내 친구.

[전화벨 소리]

주병 : (전화를 받으며) 어, 지금 갈게. 잠깐 친구 집들이 왔어. 이제 나가려고.

구정 : 수현! 잘 있어. 또 올게. 다음에 보자! 언니도 다음에 또 배요!

주병 : 잘 있어. 연락할게. 안녕히 계세요 언니.

구정 : 다음엔 수현이네서 파자마 파티 하는 걸로?

주병 : 야, 집도 좁은데 김수현 부담주지마.

구정 : 아...그런가?

수현 : 아냐, 그거 뭐 하면 되는거지. 다음에 하자. 잘가라.

고심 : 잘 가, 다음에 또 보자 애들아.

구정이 문을 열려 시도하지만 쉽게 열리지 않는다.

구정 : 어? 이거 문이 안 열려!

주병 : 비켜봐. 아오 (문을 힘겹게 열며) 이게 집이냐? 야, 우리 간다.

구정 : 김수현! 잘 있어라~

고심과 둘만 남게 된 수현.

수현 : 아, 힘들다. 언니도 기 빨리죠?

고심 : 약간? 근데 난 오랜만에 이렇게 노니까 재밌어. (3초 정적) 너 나랑 하는 알바는 이제 그만 두는 거야?

수현 : 거기가 집에서 조금 멀어서 집 근처로 다시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고심 : 아쉽네. 그래도 종종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놀자.

수현 : 그래요.

(정적)

수현 : 근데 대학...가야 되겠죠?

고심 : 에이, 안 가도 상관없어. 다니고 있는 나도 왜 다니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매일 기다리는게 공장, 종강. 이거 두개야.

수현 : 사실, 이제 뭐하고 살지 모르겠어요. 다들 각자의 길로 나아가는데 저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느낌이라고요. 열아홉에서 스무살로 숫자만 바뀌었을 뿐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고심 : ...아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 그럼 너는 너 꿈을 다 이룬 거 아니야? 비록 작더라도 수현이 너의 집이 있고, 알바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수현 : 그렇네요. 근데 왜 그걸로 만족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진짜 어른처럼 멋지게 좀 살고 싶은데 대학도 안 나온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기는 할까 싶죠. 현실적으로 대학 나온 사람이 더 기회가 많잖아요.

고심 : 그래도 세상엔 다양한 길이 많아. 너가 필요한 곳이 있을거야. 더 고민을 해봐.

수현 : 고민은 많이 했죠. 그래도 대학에 간 애들이 부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주병이 개 봐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도 어쨌든 대학에 들어가긴 했으니까...뭔가 안전한 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고심 :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지. 나도 그럴 것 같아서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수현 : 저도 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저는요, 제 또래들이 하는 평범한 고민을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맨날 어떻게 먹고 살지, 가출하면 오늘은 어디서 자지 하는 갈잡은 고민 말고요. 그래도 자는 고민은 해결이 됐네요. 집이 생겼으니까요. 근데 끝이 아니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건 왜일까요? 저는요, 애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학원도 다녀보고 싶고요, 가족이랑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소소한 생일파티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평범한 건 커녕 괜히 양아치같다고 시비털리고, 독립을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정적)

땅만 바라보는 둘. 그러다 수현은 천천히 아버지의 사진이 담긴 액자로 시선을 옮기고,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본다.

수현 : 있었죠. 경찰관.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어서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경찰이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진 않더라구요.

고심 : 그럼 지금은 되고 싶은게 없는 거야?

수현 :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래도 되고 싶은 직업은 없지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있어요. 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치사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대단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그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덕을 지키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구정 : (수현의 말을 끊고 들어오며) 저는 아이돌..? (구정이 관객을 보며 엔딩요정 포즈를 한다.) 어때? 좀 아이돌같지 않냐?

주병 : 넌 아이돌 했으면 논란이 너무 많지 않겠니...?

고심 : 하하. 너는 뭐 하고 싶었는데?

주병 : 저는 뭐...잘 모르겠는데요. 꿈 가져봤자 뭐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시집만 잘 가면 된다 그러던데.

고심 : 그래도 굳이 말한다면 뭐가 있을까?

주병 :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미술이 있으니까 아마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구정 : 음~멋있어~ 역시 내 친구.

[전화벨 소리]

주병 : (전화를 받으며) 어, 지금 갈게. 잠깐 친구 집들이 왔어. 이제 나가려고.

구정 : 수현! 잘 있어. 또 올게. 다음에 보자! 언니도 다음에 또 뵈요!

주병 : 잘 있어. 연락할게. 안녕히 계세요 언니.

구정 : 다음엔 수현이네서 파자마 파티 하는 걸로?

주병 : 야, 집도 좁은데 김수현 부담주지마.

구정 : 아...그런가?

수현 : 아냐, 그거 뭐 하면 되는거지. 다음에 하자. 잘가라.

고심 : 잘 가, 다음에 또 보자 애들아.

구정이 문을 열려 시도하지만 쉽게 열리지 않는다.

구정 : 어? 이거 문이 안 열려!

주병 : 비켜봐. 아오 (문을 힘겹게 열며) 이게 집이냐? 야, 우리 간다.

구정 : 김수현! 잘 있어라~

고심과 둘만 남게 된 수현.

수현 : 아, 힘들다. 언니도 기 빨리죠?

고심 : 약간? 근데 난 오랜만에 이렇게 노니까 재밌어. (3초 정적) 너 나랑 하는 알바는 이제 그만 두는 거야?

수현 : 거기가 집에서 조금 멀어서 집 근처로 다시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고심 : 아쉽네. 그래도 종종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놀자.

수현 : 그래요.

(정적)

수현 : 근데 대학...가야 되겠죠?

고심 : 에이, 안 가도 상관없어. 다니고 있는 나도 왜 다니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매일 기다리는게 공장, 종강. 이거 두개야.

수현 : 사실, 이제 뭐하고 살지 모르겠어요. 다들 각자의 길로 나아가는데 저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느낌이라고요. 열아홉에서 스무살로 숫자만 바뀌었을 뿐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고심 : ...아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 그럼 너는 너 꿈을 다 이룬 거 아니야? 비록 작더라도 수현이 너의 집이 있고, 알바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수현 : 그렇네요. 근데 왜 그걸로 만족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진짜 어른처럼 멋지게 좀 살고 싶은데 대학도 안 나온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기는 할까 싶죠. 현실적으로 대학 나온 사람이 더 기회가 많잖아요.

고심 : 그래도 세상엔 다양한 길이 많아. 너가 필요한 곳이 있을거야. 더 고민을 해봐.

수현 : 고민은 많이 했죠. 근데 대학에 간 애들이 부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주병이 개 봐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도 어쨌든 대학에 들어가긴 했으니까...뭔가 안전한 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고심 :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지. 나도 그럴 것 같아서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수현 : 저도 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저는요, 제 또래들이 하는 평범한 고민을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맨날 어떻게 먹고 살지, 가출하면 오늘은 어디서 자지 하는 갈잡은 고민 말고요. 그래도 자는 고민은 해결이 됐네요. 집이 생겼으니까요. 근데 끝이 아니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건 왜일까요? 저는요, 애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학원도 다녀보고 싶고요, 가족이랑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소소한 생일파티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평범한 건 커녕 괜히 양아치같다고 시비털리고, 독립을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정적)

땅만 바라보는 둘. 그러다 수현은 천천히 아버지의 사진이 담긴 액자로 시선을 옮기고,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본다.

고심 : (조심스럽게) 아버지 많이 보고 싶니?

수현 : ... 아빠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흐릿해져가서 두려워요. 사진으로 아빠 얼굴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아빠의 목소리, 아빠의 냄새, 아빠의 표정 이렇게 잊혀진다는게...

고심 : 음, 있잖아 수현아, 아빠에 대한 것이 점점 흐릿해져 가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야. 시간이 지났으니 자연스러운 일인거지. 그래도 아빠와의 추억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이 너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잊혀져가는 걸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어. 너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청년이니까.

수현 : 언니 그거 되게 경험담처럼 들리네요.

고심 : 하하, 들켰네. 나도 너랑 비슷해.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거든. 그래도 아빠와의 관계도 좋아서 잘 지내긴 했지만 난 계속 엄마라는 과거에 매여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그러고 있었다는 걸 스무살이 다 되어서야 알았지. 처음엔 인정하기가 힘들었어. 그게 뭐 어때서, 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그게 나를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됐지. 근데 그걸 알게 되니까 엄마한테 미안해지더라?

수현 : 왜요? 엄마를 잊어야 하니까요?

고심 :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엄마한테 죄책감을 느끼게 한 것 같아서. 사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길 바라잖아. 그걸 간파하고 있었던 거지. 엄마는 누구보다 나의 행복을 바랐을텐데 내가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었잖아, 스무살이 다 되었는데도 10살 어린아이를 보내주지 못했던 거야.

수현 : 아...

고심 : 아이, 참. 이제 다 지난 이야기야. 괜히 숙연해질 거 없어. 난 그냥 너는 그 후회를 좀 덜 했으면 해서...! 그런게 아니었다면 미안하구.

수현 : 하하, 괜찮아요. 언니, 뭐라도 드실래요? 애들이 가져온 과자 있는데.

고심 : 어? 아니야! 나 이제 알바 가야 해서 일어나봐야 할 것 같아. 너 많이 먹어. 자취생이 먹을 게 어딴다고. 반찬 필요하면 말해! 나 요리 꽤 잘해. 알지?

수현 : 어...그랬나요? 하하, 알겠습니다 언니! 그럼 조심히 가세요.

고심 : 어, 그래. 조만간 또 보자.

고심이 킁킁거리며 문을 열고 나간다.

수현 : 아, 이제 다 갔네..(집안을 둘러보며) 진짜 좁다. 내일은 뭐하지? 애들이랑 놀러나 갈까? (바닥에 털썩 앉으며) 이제 청소나 좀 해봐야겠다. (수현이 바닥을 박박 닦는다.) 어휴, 뭐가 이렇게 더럽냐. 애들말대로 청소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네. (수현이 집안 구석구석을 우스꽝스럽게 박박 닦는다.)

아이고야..힘들다. 코딱지만한 집인데도 뭐가 이렇게 힘드냐! 그래도 진짜 내 집이다.

좋은 좋다! 근데 왜 자꾸 뭔가를 해야할 것 같냐... 독립했으니 이제 끝인데. 이제 스무살이라서, 어른이라서 그냥 좀 싱숭생숭한건가..? 에이, 모르겠다. 고민할 시간에 짐정리나 마저 해야지.

2장

[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

수현 : 뭐지? 올 사람이 이제 없을텐데... 고심 언니가 뭐 두고 갔나?

[다시 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

수현 : 아... 네, 언니 나가요!

수현이 문을 열자 술에 취한 단혜가 들어온다.

단혜 : 야, 왜 이렇게 늦게 열어!

수현 : (병찌 있다가) 하...왜 왔어? 여긴 어떻게 알고 온거야? 아, 술냄새.

단혜 : 엄마한테 싸가지 없게 무슨 소리야? (벽에 손을 짚고 기대며) 엄마가 딸 자취방 아는게 잘못이니?

수현 : 나 엄마랑 연 끊는다 했잖아. (난입하는 단혜) 아, 들어오지 말라고.

단혜 : 여기 찾는 거 쉽지 않더라. 여기 사람 사는데는 맞니?

수현 : 집 얻는데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무슨...

단혜 : 그래도 엄마가 왔는데 물이라도 한 잔 줘 봐.

수현 : 그렇게 술 때문에 가족 속 썩었으면 됐지 또 술먹고 찾아와서 왜 이리 당당한건데?

단혜 : 그러는 너는 딸이 돼서 엄마한테 부모랑 연 끊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나?

수현 : 하...됐어. 술 취한 사람이라 무슨 말을 하겠어. 그렇게 원하는 물 한 잔 줄테니까 마시고 빨리 나가.

단혜 : 싸가지 하고는...나 자고 갈거야.

수현 : 그냥 이거 마시고 빨리 이 집에서 나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 잘 곳은 없어.

(드러눕는 단혜. 수현은 단혜를 일으키고 물컵을 쥐어주며 실랑이를 벌인다. 실랑이를 벌이던 중 물컵이 엎어진다.)

수현 : (단혜의 다리를 툭툭 치며) 발 좀 치워봐. 아 치워보라고. (단혜가 들은 체 하지 않자 닦는 도중에 걸레를 던지며) 아, 진짜 나한테 왜 이러는건데! 내가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 때리고 욕했잖아. 그거 다 내가 싫어서 그런거 아니야? 그래서 나왔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왜 맨날 난 엄마 술주정 받아줘야 해? 나도 다른 평범한 애들처럼 엄마, 아빠랑 수다도 떨고, 여행도 가고, 또 학원도 다니고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 근데 제발 오늘 하루는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집에 더 이상 경찰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을 하고 살아온 게 너무 속상하고 비참해.

독립한 지금도 다들게 없어. 하루 하루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엄마는 이런 나를 한번이라도 생각해본 적 있어? 없겠지. 있었다면 아빠가 살아있을지도 모르지. 엄마가 조금이라도 가족을 생각하고 돌봤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거야. 다 엄마 때문이라고. 술 사 먹을 시간에 나를 한번 더 돌아볼 생각은 안해봤어? 맨날 맞는게 무서워서 가출하고, 그것마저도 지쳐서 그냥 엄마한테 맞기만 했던 나를 알기나 해? 가출했던 날에 비상계단에서 잤을 때 정말 딱 죽고 싶더라. 살다 살다 이제 잘 곳도 없어진 나를 보면서 독립하겠다고 마음 먹은거야. 여긴 내 공간, 내 집이야!! 진짜 참고 참아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제 그만 좀 해.

단혜 : (쏘아붙이며) 그래, 너 말 잘했다. 나도 이 꼬라지로 오고 싶었겠어? 내가 너한테 엄마 대접 받으려고 이렇게 온 줄 아냐고... 그래 이럴줄 알았어... 맞아. 다 내 탓이야... 내 탓이지. 너도, 너희 아빠도. ... 몇번을 문 앞에서 두드릴까 말까 했는데...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서, 면목이... (오열)

수현 : 이제와서 나보고 뭐 어찌라고, 동정이라도 받고 싶어서 찾아온거야? 됐고 빨리 나가, 엄마가 제발로 나가지 않으면, 난 신고를 해서라도 내보낼거야. 안 그래도 술 취한 사람이니까 잘 됐네.

단혜 :

느릿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단혜를 수현은 문으로 떠밀듯이 내보낸다.

수현은 단혜를 내보내고 문을 굳게 잠근다.

문을 닫은 후 수현은 문고리를 붙잡은 채 주저 앉아 운다. 수현은 어질러진 집안을 정리를 하면서도 계속 운다.

수현 : 아...머리 아파.

수현은 걸레를 정리한다. 그 후 쇼파 앞에서 쭈그려 앉아 잠에 든다.

정적. 조명이 살짝 어두워진다.

3장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깬 수현은 천천히 일어난다.

문을 열지만 아무도 없다.

수현 : (문 밖을 둘러보며)...뭐지?

수로, 수현의 뒤에서 수현을 부른다.

수로 : ... 수현아.

수현, 흠칫 놀라며 뒤돌아본다. 아빠를 발견한다.

수현 : ... 아빠?

수로, 땅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은 뒤 수현에게 다가간다.

3초 뒤 조명 색깔이 바뀐다.

수로 : 독립 축하해, 수현아. 우리 야무진 딸. 기특하다.

수로, 수현에게 꽃다발을 건넨다.

수현 : 아빠 집들이 온거야? 이거 꿈 아니지? 어떻게 알고 왔어?

수로 : 그 있잖아, 일론이? 나일론? 그 친구가 말해주더라.

수현 : 일론..? 아, 일감이~ 아이, 아빠! 일론이가 뭐야! 나일론이라니!

(서로를 바라보고 정겹게 웃으며 쇼파에 앉는다.)

수로 : 잘 지냈어? 요즘 별 일 없고?

수현 : 늘 똑같지. 방금 전에도 엄마가 와서 한바탕 했어.

수로 : 미안하다. 아빠가 있어줘야 했는데.

수현 : ...아냐.보고싶었어 아빠.

수로 : 우리 딸 이제 성인 됐으니까 아빠가 딸 면허 따는 것도 도와주고 해야하는데!

수현 : 아 맞네. 성인되면 같이 운전 연습하기로 했으면서. 결국 약속도 안 지키고... 치사해 정말.

수로 : 하하. 미안해, 딸. 아빠가 좀 바빴어. 요즘 뭐 힘든 일은 없고?

수현 : 힘들다기보다는 이상해. 엄마한테 도망쳐나와서 그토록 바라던 독립을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독립에 관해서 떠들러 와서 그런가? 난 분명히 내 독립이 잘한 일이라고 확신하는데... 그래도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

수로 : 그래, 당연한거야. 네 모든 노력이 만든 독립이니까... 그나저나 아직도 엄마는 화가 많나보네. 요즘도 엄마가 술 마시든?

수현 : 엄청 마시지. 술먹는 하마인줄.... 아까도 어떻게 알았는지 술 취한 채로 여기로 막 와서 깽판 쳤어. 그래서 엄청 화내면서 쫓아냈지. 그동안 참느라 한번도 못한 말들도 다 해버렸어.

수로 : 그래? 뭐라고 했는데?

수현 : 한 번이라도 엄마가 가족을 생각했다면 우리 가족이 좀 달라졌지 않았을까 싶었어. 나는 엄마와 함께 살아오면서 대단한 걸 바라게 아니었거든, 남들이 다 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만 꿈꿔왔는데 그것마저 되지 않으니까 너무 괴로웠어. 그런 말들이 한번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멈추지 않더라고 ... 그래도 아빠가 있었을 때는 추억이 그나마 있었어서 좋아.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오이도랑 대부도 가서 놀았던 거. 그때 나 처음으로 갈매기한테

'유기농 쌀로 기름에 튀기지 않고 건강하고 맛있게 만든 담백한 어니언 라이스칩' 도 (과자도 줘보고 주고 했잖아. 그때 아빠가 갈매기한테 머리 뜯길 뻔해서 진짜 웃겼는데.

수로 : 하하. 근데 그 갈매기들 '달콤한 벌꿀과 고메버터의 풍미가 더해진 허니버터칩' 을 더 좋아하지 않았나?

수현 : (까르르 웃으며) 아 맞다맞다. 그랬지! 아빠 다 기억하네! (과자들을 다시 박스에 집어넣는다)

수로 : 그럼, 우리딸이랑 같이 간 여행이었잖아. 아빠가 더 함께 하지 못해서 그게 아쉽다. 아빠가 더 데려다 주고 싶은 멋진 곳들이 아직 많은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즐겁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수현 : 잘 지낸다기보다는 그냥 비슷한 애들끼리 사는거지. 그나저나 아빠, 아빠는 스무살 났을 때 어땠어?

수로 : 당연히 너처럼 힘들었지.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모든 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니까 정말 막막 하더라고. (2초 뜸들이며) 무엇보다 그런 상황을 마음놓고 터놓을 사람이 없었다는게 많이 힘들었어.

수현 : 역시 나랑 비슷하네... 나는 십대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내 목표인 독립을 하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내 목표를 이루고 또 더 많이 남은 나날들을 보니까, (한숨 쉬며) 독립을 이루기 전보다 더 막막하고 공허해진 것 같아. 나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알아서 될 줄 알았거든.

수로 : (정확히 수현을 바라보며) 그래서...도망친거야?

(수현은 수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채로 답을 못한다. 정적이 흐른다.)

수로 : (천장을 바라보며) ...아빠는 그래서 도망친거야.

수현 : ...뭐가?

수로 : 여러가지 많은 것들. 사랑했던 아내가 무너지는 모습과 내 행동들, 그리고 끝나지 않던 경제적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치니까 나의 꿈이나 이상같은 건 사치가 되어버렸거든. 어릴 때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풀어질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가장의 무게는 생각보다 많이 무겁더라.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지. 어디든, 정말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었어. 아무 것도 눈 앞에 보이지 않았지. 내가 도망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떠맡아버릴거란 사실은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그냥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만 생각한거야.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수현 : ... 그럼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는 내 옆에 계속 있어줄거야?

(슬픔) 울먹이다가 애써 밝은 모습

수로 : (뜸들이며) 당연하지, 고민할 것도 없이 우리 딸 옆에 계속 있어줄거야. 물론 다시 돌아가도 그 모든 것들이 버겁겠지만 용기내서 한번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것들에 집중하면서 살던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 우리 수현이를 한번 더 사랑해줄 시간도 없었는데 말이야.

수현 : 하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벌떡 일어나서 대사) 난 못할 것 같아. 내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겠지만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아무리 내가 세상을 다르게 보려 노력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지칠 것 같아. 도망치고 싶어지는거지 봐봐, 내가 독립해도 엄마는 변하기는 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여기까지 찾아왔잖아. 난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싫어.

수로 : 수현아, 모든 일들은 항상 수현이 너가 먼저야. 수현이가 심각하게 생각하면 심각한 일이 되고, 너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일이 되는거야. (손동작) 그 문제를 계속 파고 들면 끝도 없더라고. 정말 조금만, 진짜 한발짝만 떨어져서 바라보면 그건 정말 너의 삶의 작은 일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너는 살아갈 날들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으니까.

수현 : 음... 아직 내가 완전히 이해하긴 어렵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살아갈 날들이 지금보다는 나아졌으면 좋겠네.

수로 : 그래, 수현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건 아빠도 알아. 그렇지만 너는 아직 겨우 스무살이잖아. ...좀 끈대 같았나? 아빠가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서... 수현이는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것들에 너의 전부를 쏟지 않았으면 해서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 비록 아빠는 도망쳤지만, 수현이는 그러지 않았음 좋겠어.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암전.

수현 : 아빠, 오늘 자고 가는거지?

4장

수현은 몽롱한 상태로 잠에서 깬다.

수현 : (관객석을 향해 힘 주어 고개를 들며) 아빠, 아빠!

수현 : 뭐야..나 아직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남았는데 이렇게 가버리네. (꽃다발을 쳐다보며) 치사하게...

수현은 아빠가 있던 자리에 놓여진 꽃다발을 바라본다.

(정적)

(쇼파 중앙에 앉고 땅을 응시하며) 아빠, 나 사실 너무 막막했어. 이제 막 성인이 된 스무살. 두개의 숫자가 날 괴롭게 하더라. (관객석을 살짝 둘러본다) 난 아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이제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다시 고개를 숙이며) 내가 모든 것을 건뎌야 된다잖아.... (다시 고개를 들어 관객석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그 지긋지긋한 가족. 아빠도 잘 알지? (심호흡 한 뒤) 생각만해도 숨 막혀. 그래서 도망쳤어. 이 단칸방으로.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 드디어 자유다! 나만의 공간이 생겼구나!(작게 웃는다.)... 그런데 아니더라. 이제야 아빠 말이 조금 이해가 돼. 난 앞만 보고 그냥 무작정 도망쳤을뿐 목표같은 건 없었어. 그땐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아니더라고.

어릴 적부터 혼자였던 세상 속에서, 내 편 하나 없는 곳에서 도망쳐온 게 바로 이 작은 단칸방이야.

(방을 둘러보며 벽을 만지작 거린다.) 이것 봐, 한 대 치면 무너질 것 같은 벽에 두꺼운 철판. 이런 집 하나가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야. 참 웃기지?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오며) 근데, 그냥 다 내려놓고 싶었나봐.

정말, 정말로, 그때는 의미있는 일을 한다고 시작했었던 말이야. 근데 언제부턴가 내 꿈은 그냥 이 작은 단칸방 하나가 되어버렸던거지. 그래서 이 작은 것에 집착했어. (천장을 바라보며)...그냥 두려웠던 건가? 힘들게 가꾸놓은 내 집이 사라질까봐, 누군가 또 앓아갈까봐. 나의 행복이 사라질까봐... 그렇게 잘 숨었는데 결국에는 엄마라는 ‘불행’이 찾아오더라... 어찌어찌 해서 내보내긴 했는데. 왜인지 후련하지는 않았어. (관객석을 바라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하면 할수록 남탓만 하게 되고.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었나봐.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게 아닌, 저 두꺼운 문을 열고 세상을 제대로 마주보는 것부터 시작인거지. (숨 들이마시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단칸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나오길 바랐던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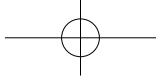
(대사 2초 후) 쇼파로 걸어가 관객석을 바라본 채로 꽃다발을 만지작 거린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얼굴을 마주보고 한번 더 용기를 내서 다가갈 줄 알아야 했는데...

(뚜렛이 관객을 쳐다보며) 치사한 건 그들이 아니라... 나였네.

[전화벨 소리]

수현 : 여보세요 네? 아 경찰서요. 또 저희 엄마가... 네. 이젠 뭐. 익숙하죠. 근데 어찌겠어요. 가봐요. 제가 딸인데... 네, 네. 네엡.



꽃다발을 제자리에 놓은 채로 수현은 나갈 채비를 한다.

문을 나서기 전 문고리를 잡은 채로 작은 단칸방을 잠시 바라본다. 문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대하지
만 가볍게 열고 나선다. 이때 조명은 단칸방과 수현을 편조명으로 부각되게 비춘다.

모든 조명이 서서히 꺼진다.

The End.